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 2008년 북미한국문학 워크샵 기록

편집자: 이재연

편집자 주

- 1) 편집자가 문맥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넣은 구절에는 괄호 “[ ]” 표시를 하였고 부가정보는 각주처리를 하였다.
- 2)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의 이름은 한글로, 북미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이름은 영어로 표기하였다.
- 3) 한글로 진행된 강의 및 토론은 한글로, 영어로 진행된 토론은 영어로 표기하였다.
- 3) 강의는 내용전달에 충실히 하기 위해 “-다”로 끝나는 문어체를, 질문 및 토론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습니다”로 끝나는 구어체를 각각 사용하였다.
- 4) 질문자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름을 적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질문 (question)” 혹은 “의견 (comment)” 이라고 표기하여 강의자가 질문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 4) 강의 채록의 원목적은 한글사용이 불편하신 외국인 학자분들을 위해 강의의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채록자는 세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띄워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이곳에 정리된 참석자들의 어투나 발화형식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내용 역시, 짧은 문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문맥을 찾아 재구성한 것이다. 이 문맥의 정오(正誤)를 확인하기 위해 임형택, 김재용 선생님 등의 감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점 양해 바란다.
- 5) 2008년 6월 20일 오전과 21일의 오전 강의는 몇 가지 이유로 채록되지 않아서 이 자료에 빠져 있음도 양해 바란다.

\* 일정: 2008년 6월 19일-21일

\* 장소: 시카고 대학교 (The Franke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 참석자:

임형택 (성균관 대학교)

고영일 (한국문학번역원)

김재용 (원광대학교)

이상경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정병설 (서울대학교)

정근식 (서울대학교)

Kyeong-Hee Choi (Univ. of Chicago)

Michael Bourdaghs (Univ. of Chicago)

Bruce Fulton (Univ. of British Columbia)

Juchan Fulton (Translator)

Kelly Jeong (Univ. California, Riverside)

Yuming He (Univ. of Chicago)

Ji-Eun Lee (Univ. of Minnesota)

Young-Jun Lee (Harvard University)

Hae-Young Kim (Duke University)

Jina Kim (Smith College)

Ross King (Univ. of British Columbia)

Aimee Nayoung Kwon (Duke University)

Sunyoung Park (U of Southern California)

Youngjoo Ryu (Univ. of Michigan, Ann Arbor)

Young-Hee Sohn (Librarian, U of Chicago)

Serk Bae Suh (Univ. of California, Irvine)

Yuan Zhou (Librarian, Univ. of Chicago)

\* 자료 채록에 도움을 준 시카고 대학교 한국학 박사과정생들

Heekyoung Cho

Namhee Han

Ji-Young Kim

Jae-Yon Lee

Hyun-Hee Park (Kor. Studies coordinator)

Hyun Suk Park

\* 워크샵 진행에 도움을 준 시카고 대학교 학생들

Kevin Mulhollander (웹페이지 제작)

Andrew McClough (비디오 촬영)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2008년 6월 19일, 오전 9:30 - 정오**  
**임형택 선생님 강의**  
**한민족의 문자생활과 문학의 근대적 전환**

임형택: 문학이라는 것도 일종의 문자행위이고, 고전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문학을 기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자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강의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문어인 한자와 한국사람이 만든 문자인 한글에 대해 다뤄보고, 그후 문자생활과 문학감상을 연결지어서 토론해 보도록 하자.

**한자의 동아시아적인 의미와 한민족의 한자 사용.**

한자는 동아시아 민족국가들에 있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역사적 의미와 기능에 있어 서양의 라틴어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동아시아 주변의 민족국가들이 자신의 문자로 이용하였다. 비유적으로 만리장성이 중국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한자는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만리장성은 민족을 방어하는 역할만을 했지만, 한자는 소통어이며 중국의 문자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동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이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소통해 나갔는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 문자를 만든 것은 아니다. 또한 고유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문화적 우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원시적인 형태로 문자가 존재했다. 동아시아 각 민족이 한자를 공용어로 받아들여 자신들의 소리를 문자화 시켜 나갈 때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한자가 표음문자가 아니라 표의문자라는 데에 있다.

**향찰/이두/구결**

글은 소리를 배우고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쓰는 것이 좋다. 이러한 언어의 경제성에 의해서 한문은 약호화되어 수용되었다. 일본어는 바로 한자어의 약호화 과정을 거쳐 만든 문자이다. 사실, 일본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방식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언해이다.<sup>1</sup> 훈민정음 창제 이전, 한자를 받아들이는 기본 방식은 일본과 비슷했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구결의 경우 삼국사기에 “방언으로 구경을 해독했다.”라는 구절이 있고, 여기서

---

<sup>1</sup> 언해 (諺解): “번역(翻譯)’은 어떤 언어로 표기된 것을 다른 언어로 바꾸어 표현할 경우에 두루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인 데 대하여 ‘언해’는 주로 중국어나 한문을 국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경우에만 사용된 번역 용어이다. 중국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국어로 표현하는 경우는 ‘번역’ ‘신역’ ‘신번(新翻)’ 등으로 불리었다... 최초의 언해는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이며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출현한 번역서는 전·부전(傳不傳)을 합하여 40여 책, 200여 권에 이른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방언은 한국어를 말한다. 설총에 이르면 한국어를 통해 한자를 학습하고 구결을 만드는 방식이 확립된다.<sup>2</sup>

구결은 불교경서에 많이 남아있다. 묘법연화경의 예를 들면 인쇄된 한문 옆에 붓으로 필사해서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 있는 가장 오래된 활자로 종종 직지심경을 언급하는데, 이 직지심경으로 찍은 불경에도 한자 옆에 붉은 글씨로 구결이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향찰은 고려초까지는 발견되나 그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sup>

한자의 차용체 표기는 신라-고려를 거치면서, 향찰 표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이두는<sup>4</sup> 공문서에 쓰였으며, 구결은 한문 공부의 보조적 수단으로 쓰였다. 그러나 전면적인 표기는 한문체에 의존했다. 구결이나 향찰이 일본처럼 한자의 약호화된 문자체계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마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즉 중국문화를 중국의 고도의 문자체계 형태로 받아들여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은 이유에서 일 듯하다.

1) 질문: 언어 체계로서 향찰과 이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또한 사용문서에 따른 차이도 있었나요? 왜 이두가 공문서와 법조문서에는 남아있습니까?

임형택: 향찰과 이두는 체계가 다릅니다. 향찰은 전면적으로 표기가 가능한 체계임에 반해 이두는 부분적인 것이지요.

<sup>2</sup> 구결(口訣): “현토(懸吐) · 토(吐) · 석의(釋義)라고도 한다...구결은 주로 한자의 음(音)을 이용하여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이두와 비슷하나, 그 사용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 이두와는 확연히 구별된다...결은 隱(은, 는) · 伊(이) · 乙奴(으로) · 乙(을) · 厓(에, 예) · 是面(이면) · 里五(리요) · 是於焉(이거든) 등과 같이 쓰이기도 하였지만 이를 약체화(略體化)하여 (은, 는:隱字의 좌변) · 尔(며:旡字의 우변) · (야:也字의 가로획) · (飛字의 윗부분) · 人(이:是字의 아래획) · (면:面字의 윗획) · (나:那字의 좌변) · 丩(라:羅字의 半字 ㄷ의 아랫부분) · 厶(애:厓字의 윗변) 등과 같이 한자의 한 부분을 떼어 쓰는 것이 관례였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3</sup> 향찰(鄉札): “문자를 가지지 못한 신라는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차용하여 말을 기록하였다. 향찰은 차자(借字)표기 중 하나로 향찰로 기록한 가요를 향가(鄉歌)라고 한다. 이두(吏讀)는 한문을 주로 하는 글에서 토로 쓰던 부분에 한정되어 사용하여 생략해도 한문이 그대로 남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향찰은 문장 전부를 향찰로 표기했기 때문에 향찰을 없애면 문장 전체가 없어진다. 《삼국유사(三國遺史)》에 신라 향가 14수가, 《균여전(均如傳)》 고려향가 11수가 전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4</sup> 이두(吏讀): “이두(吏頭) · 이토(吏吐) · 이투(吏套)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호칭은...신라시대에는 쓰이지 않은 듯하며 고려시대에 들어와 점차 공문서나 관용문에 쓰이면서 생긴 명칭인 듯하다 ...이두는 넓은 의미로는 한자차용표기법(漢字借用表記法) 전체를 가리키며 향찰(鄉札) · 구결(口訣) 및 삼국시대의 고유명사 표기 등을 총칭하여 향찰식 이두 또는 구결식 이두 등의 말로 쓰이기도 하나, 좁은 의미로는 한자를 한국어의 문장구성법에 따라 고치고 이에 토를 붙인 것에 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의미부(意味部)는 한자의 훈을 취하고 형태부(形態部)는 음을 취하여 특히 곡용(曲用)이나 활용(活用)에 나타나는 조사나 어미를 표기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의 표기는 한국어 문장 전체를 표기하게 되는 향찰에 와서 그 표기의 난숙기를 이룬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이두가 왜 법조문서에 남아있는지에 관해 답변 드리면, 중국에서도 일반적인 한문은 실용문이 되기 어려워서 이문이라는 형식을 따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법조문과 같이 애매해서는 안 되는 문서의 경우 이문을 썼지요. 한국에서는 이두가 이문의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조사나 용언의 어미 활용에는 구결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향찰은 향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삼국유사에 14수, 균여전에 11수가 실려있는데 이들 시가가 고려 초에 향찰이 쓰인 좋은 예입니다. 고려 예종 때 지어진 <도이장가> (悼二將歌, 1120)는 향찰 표기의 마지막 사례입니다.<sup>5</sup>

2) 질문: 향찰 표기는 향가에만 남아있는데 다른 데에 쓰이지는 않았습니까?

임형택: 가능성은 있으나 남아있는 문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질문: 문자향유층에 따른 차이가 존재합니까?

임형택: 문자 향유층에 대한 문제는 알기 어려우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 질문: 한자어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해 왔는데, 한국어 발음과 한자발음 사이의 긴장관계는 없었을까요?

임형택: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1: 신라 경덕왕 때 한자식 지명이 사용되었는데, 예) 미리벌->밀양. 밀양이 나타내는 뜻과는 관계 없는 한자어가 차용되었습니다. 2) 다산이 쓴 <<아언각비>>에 보면 참기름을 한자로 ‘진유’로 적어놓는데, 중국어에는 ‘진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을 혼독한 내용을 한문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3) ‘돌’이라는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한국식의 한자 [珣] 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5) 정병설: 구결을 인쇄 후에 붙인다고 하셨는데, 인쇄 전에 이미 붙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까?

임형택: 한글 구결은 인쇄할 때 이미 붙이지만, 약호화된 구결의 경우, 인쇄 전에 이미 붙어있었던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한글의 창제와 그 기능

임형택: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여러 다른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1)경전학습을 위한 현토와 언해, 2)공사문서, 3)한자의 음과 뜻의 정확한 구분 및 4) 노래의 가사 등등.

그러나 위의 목적 중 공사문서에 한글을 사용하려는 의도는 실현되지 않았다.

갑오경장 때 나온 문항 중 하나가 ‘공문서는 우리말로 쓴다’는 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공사문서에 한글을 적용한 것은 근대이전까지는 없지 않았겠는가 생각한다.

훈민정음을 만든 사람들의 의도 속에는 표음문자의 이상이 있었고, 또 배우고 가르치기 쉬운 글자를 통해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깨우쳐 보자는 이상도 있었던 듯하다.

<sup>5</sup> 도이장가(悼二將歌): 고려 예종이 지은 8구체 향가. 왕건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고려창건에 크게 이바지한 신승겸과 김락 두 공신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은 노래 (네이트 사전).

그러나 백성은 백성일 뿐, 국민이 아니었다. 한글이 가지는 국민문자로서의 이상은 전근대사회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글이 한문의 뒤를 이어 보조적인 역할을 행했던 것은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 한다.

1) 질문: 백성을 위한 문자창조라는 기능은 실현되었습니까?

임형택: 여성들, 농민들의 문자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질문: 한문체 국문체의 용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임형택: 한문체/국문체는 성적, 계급적 분할구도를 보입니다. 국문체는 여성용, 대여성용, 일반서민을 위한 문자인 반면 한문체는 남성, 양반 중심이지요. 국한문체가 조선시대 등장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언어의 도구적 측면에서 등장한 것이지 독자적인 문체가 아닙니다. 경전의 언해 (한문→ 한글 번역을 학습하기 위한 보조도구), 노래의 가사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어제운음(御製綸音)의 경우도 국문과 한문을 병기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글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sup>6</sup>

3) 질문: 영조가 세손 정조에게 준 글 중에 한글로 된 것이 있습니다. 왜 국문으로 썼을까요?

임형택: 사실, 한글문화의 최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곳은 궁이었습니다. [궁에서 한글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한글을 천시했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한자와 한글은 기능적인 차이를 가진 것이지 상하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문이라는 말은, 중국 한자를 보편적인 문자로 생각했을 때 그 외의 문자를 지칭하면서 사용한 것인데, 꼭 천시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4) Kelly Jeong: 한글이 천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문과 한글을 쓸 때, 공과 사의 구분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임금이 자기 어머니나 손자에게 쓸 때와 같이 사적인 관계를 갖는 대상에게 글을 쓸 때 한글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요?

임형택: 국문이 천시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문이 천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는데 아직도 그 인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구분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겠고요.

5) Sunyoung Park: 사적문서에서 한글 표기가 더 많지 않았나요?

임형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이 보이지요.

정병설: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사 문제보다는 발신자나 수신자가 여성인가, 일반 백성인가가 관건이 되지 않았을까요?

6) 정병설: 비문에는 한글이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까. 비명 이외의 경고문 등에만 한글이 쓰인 것 같은데요.

<sup>6</sup> 어제운음(御製綸音):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홍인한, 정후겸 등 벽파를 성토하여 죄를 주고 그 사실을 국내에 알린 운음 (네이트 백과사전).

임형택: 비문에 한글이 쓰이지 않았던 것은 형식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사 전체에 한글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한문으로 된 형식인데 거기에 한글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문집도 역시 한문으로만 쓰였습니다. 송강의 한글 가사들도 자신의 문집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니다. 천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문집이라는 형식 속에 한글로 쓰인 글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문의 경우는 가장 준엄하고 형식을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이 쓰일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7) 질문: 여성들이 편지를 한문으로 쓴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병설: 여성이 여성에게 쓰는 편지의 경우 한문으로 쓴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유명한 여성들 중에 시문을 한문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역시 특별한 경우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 Ji-Eun Lee: 남성들이 형식적으로 한글을 요구하는 글이 있어 한글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까?

임형택: 박정양의 <<포쇄일기>>가 있습니다.<sup>7</sup>

### 한국문학사의 이원 구조

임형택: 근대문학의 중심과제는 한문(한문학)과 국문(국문학)의 이원구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한 보편성의 지향, 이것이 바로 문명이라고 생각하였고, 중국문명 이외의 문명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약호화된 한자로 된 향찰, 이두 등을 이용한 문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또한 한글 창제 후에도 한문학의 주류적인 형세를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 한글이 국문이고 한글로 쓰여진 문학이 국문학이라는 의식은 없었다.

그러나 중화문명과는 다른 우리 식의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되던 14세기 말은 대원제국이 해체되던 시기이고 서쪽으로는 르네상스 문명이 발흥되던 시기였다. 이제현, 이색은 원나라에 가서 중국의 지식인과 교류하며 새로운 문명의 계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정도전은 조선건국을 통해 우리의 인문을 창조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문학이 주류를 차지한 상황에서 국문학은 어떤 위상을 차지했었나?

국문학은 한문학과 상하관계를 이루는 범주라기보다는 한국문학 중에서 한문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세기 이전에는 시가 양식이 전부였지만 17세기 이후 국문으로 된 소설 양식이 출현하였다. 국문학을 존속케 한 현실적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가창의 요구, 여성과 서민들의 문학적 요구 등등이 있다.

1) 가창의 요구: 가창을 한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글문학이 필요했다.

<sup>7</sup> 포쇄일기: 조선말기의 관료인 박정양 (1841-1904)의 시문집.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국문가사체로 적은 것 (네이트 백과사전). 포쇄일기를 다룬 논문으로 류준필, “신발굴 자료를 통해 본 가사문학의 재인식: 박학사 ‘포쇄일기’와 가사의 기록성,”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년 1월): 111-140 등이 있다.

이황은 “도산십이곡”에서 이렇게 말했다.“오늘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 필히 이속어로 엮어야 하니 대개 우리나라의 음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균여전>>의 서문을 보면 시는 전부 한자로 엮고 노래는 방언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한시와 국문시의 이원적 형태는 이미 신라때부터 내려온 것이며 이러한 전통 속에서 송강 정철, 윤선도의 국문시 창작이 이루어졌다.

2) 여성과 서민들의 문학적 요구: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국문소설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국문소설은 흥미가 주 목적이었고, 독자와 작가가 한문소설과는 다른 형태로 관계를 맺는다 (내일 규방소설에 대한 강의에서 보충하겠다). 그러나 한문학의 주류성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한문학/국문학의 이원구조는 19세기 말까지는 지속되었다. 이 통합은 신문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20세기 들어와서야 해결되었다.

- |   |
|---|
| <p>1) 임형택: 그렇다면 퇴계 같은 학자가 왜 국문시를 썼을까요?<br/>         임형택: 보통 국문시를 지을 때는 음악성, 오락성, 즉흥성을 중시했지만, 퇴계는 시작(詩作)에 단지 오락적인 기능만 부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노래가 가진 특성 중에서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기능을 중시했고, 이러한 교육적인 의미에서 국문시를 쓴다고 밝히고 있지요.</p> <p>2) Kyeong-Hee Choi: 개념으로서의 한문학/국문학의 구분, 표기법으로서의 한문/국문이라는 구분으로 보면, 국한문체는 어디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br/>         임형택: 국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p> |
|---|

### 근대적 의미의 한국문학의 성립과정

임형택: 한국인에게 국민문학이라는 개념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식민지 시기 한국인이 국민문학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일본 제국의 백성으로서의 문학을 의미했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기에는 주권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문학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으며, 해방 이후에 이 용어는 남한문학만을 지칭했기 때문에, 국민문학 보다는 ‘민족문학’이라는 용어가 어울리고 또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근대문학의 기점은 1894년으로 보고 있다. 청일전쟁, 갑오농민전쟁, 갑오경장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근대문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청일전쟁을 통해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서양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근대문학은 두 단계를 거치면서 성립하는데 그 첫 단계 (1894-1910)가 계몽주의 시대이고 두 번째 단계가 1919년 이후이다. 이 계몽주의 시기의 문학적 특징은 한문체와 차용체가 후퇴하고 국한문체와 국문체가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한문체가 담당하던 역할을 국한문체가 맡게 되고, 이전에는 ‘문’이라고 지칭했던 중국문자를 ‘한문’이라고 부르고 언문이 국문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국문체와 국한문체의 공조 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공조체제는 국문체와 국한문체 사이의 갈등을 야기했다. 국문체가 한문체를 배제하려고 하면서 20세기의

한글 대 한글혼용의 싸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출판물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국문/국한문의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신문>>은 기독교적인 특성과 서구지향성을 반영하여 국문으로만 출판하였다. 장지연의 <<여자독본>>은 한글 옆에 작은 글자로 한자를 병기하였다. 이것은 여성들의 한글중심 가독성에 대한 배려와 한자교육에 대한 필요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황성신문>>은 문체에 대한 대한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한문을 공용하는 것이었다. 즉, 고문(한문)과 금문(국문)을 병용코자 하였다. 이것은 한문전통을 개명진보에 접목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1919년의 3.1운동은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1910년 식민화로 인해 파산한 계몽주의의 문화적 재점화 및 초월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3.1운동 이전 조선의 주된 정조는 정치적 자유주의, 독립주의,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한 애국주의였지만, 3.1운동 이후에는 이를 넘어서고 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 시기에 이르러 신문학은 형식을 갖추게 되나 그 형식에 민족전통과의 계기적 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 소시민적 정서로 흐르게 되어 민족현실과 유리되게 되었다.

1) Kyeong-Hee Choi: 장지연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여성독자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 이상경: 당시의 새로운 용어들, 예를 들면 미국, 학교, 문학 등의 단어에만 한자를 병기한 것 같습니다.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근대적 지식에 대한 의식이 아니었을까요?

3) Jina Kim: 장지연의 <<여자독본>>을 보니, 여성들의 애국심, 근면성 등 여자 일반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폭넓게 다룬 것 같습니다.

Hae-Young Kim: 이 <<여자독본>>의 출간에서 장지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편찬자였나요?

4) 정병설: 진서와 언문의 구분에 의하면 국한문체는 한문쪽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런지요.

임형택: 일반적으로 국한문체는 노래 가사 정도에나 쓰이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5) Ji-Eun Lee: 한글이 여성의 글이라는 인식에 의문이 있습니다. 1910년 이전에는 여성들을 위한 한글이라고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여성을 상징하고 여성에게도 한문 교육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

임형택: 신교육이 시작될 때 한문교육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문제는 연구된 바가 없지만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성들을 위한 읽을 거리는 한글 위주이며, <<여성독본>>의 경우처럼 한자가 달려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상경: 여성들의 교육은 신교육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1910년 이후 공교육으로서 일본어 교육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본어교육에서 한자를 배웠을 것이고요. 여자들도 논설을 쓸 경우에는 국한문체를 썼습니다. 예를 들면, 나혜석의 <이상적 부인>은 국한문체이지만 소설 <경희>는 국문체이지요. 한 여성이 국한문/한글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한글은 여성의 문자라는 구분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5) 임형택: 1910년대 전후에는 소설 내에서도 국한문체가 많이 발견됩니다.

이광수의 <<무정>>은 국문, <<개척자>>는 국한문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임형택: <<무정>>의 국문체는 발표매체인 <<매일신보>>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1924년까지는 국한문체가 압도적이고, 24-25년 즈음해서 전반적으로 국한문체가 국문체로 바뀌게 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 2008년 6월 19일, 오후 1:30-2:20 강의

#### Traditional Books as Physical Entity: Production, Circulation, and Preservation Hyung-Taek Lim, Young-Hee Sohn, Yuming He, & Yuan Zhou

#### 중국과 한국의 출판 문화에 관해

임형택: 사실 동아시아에서 살펴보면 활자가 책의 대중화에 기여를 크게 하지 못했다. 중국의 출판문화의 발달은 사실 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의 발전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즉, 중국의 경우 서구의 활자본이 한 역할을 목판본이 담당하였는데, 목판 인쇄술은 명청시대에 주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경우, 신라에서 중국의 인쇄술을 수입하여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한국에는 석가탑에서 출토된 세계 최초의 인쇄본 무구다라니경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이 당나라에서 사온 것이라고 주장한다.<sup>8</sup> 개인적으로는 ‘최초’의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다만 한국이 중국의 종이 제작술이나 인쇄술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한국이 자랑스러워 하는 출판인쇄물로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sup>8</sup> 무구정광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 “목판인쇄본 불경...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이 《다라니경》 출간연대의 상·하한(上下限)은 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로 추정하는데, 그 까닭은 당(唐)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집권한 15년 동안에만 주로 통용되고 그 후에는 자취를 감춘 신제자(新制字) 4자...를 이 경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최소한 석가탑의 건립연대인 751년을 그 하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인경(印經)으로 알려진 일본의 《백만탑다라니경(百萬塔陀羅尼經)》(770년 인쇄)보다 20년이 앞서는 셈이고, 지질(紙質)이나 인경의 형태를 보더라도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신라에서 조판(雕板)되었음이 확실하므로, 한국 고인쇄문화(古印刷文化)의 높은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다. 사실, <<팔만대장경>>은 세계인쇄문화의 금자탑이라고 할 만하다. 양적으로도 대단하지만 적어도 800년 전의 것을 지금도 선명하게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조선왕조실록은 부수를 많이 찍지 않고 사고에만 보관하였다. 원래 실록은 후세에 보기 위한 것이기에 당대에는 볼 수 없었으며, 실록 중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국조보감>>이라는 책을 따로 편찬하였다.

중국책과 비교하여 한국책의 서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책의 경우, 저렴한 값에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작은 책 선호한 반면 한국서적은 능화판이라 하여 무늬가 새겨진 큰 책이 많다. 예를 들어 선장본의 경우, 한국책은 송곳 구멍이 5개, 중국책은 4개이다. 중국책을 수입할 때 많은 경우 이렇게 변화시켰다.

한국의 고서적 출판의 경우, 예전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책을 찍어내지 않았다. 대중적, 상업적 목적의 출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연대는 확정할 수 없다. 물론 상업적 출판은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선다. 책이 상품으로 먼저 거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상업적 목적으로 책을 찍어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렇듯 판매를 목적으로 찍어내는 책을 방각본이라 하고 그 종류는 소설, 교재 류가 주종을 이뤘다.<sup>9</sup>

국문소설 출판은 서울, 전주, 안성의 세 곳에서 이뤄졌다. 목판본이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목판본에 의해 출판문화가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구하고 사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경우 필사본을 통해 유통되었다. 중국의 <<사고전서>> 역시 필사본으로 출간되었는데, 중국이라는 대국의 문화적인 사업이 필사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볼 때 필사본이어서 양질이 아니었다거나 목판인쇄물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가정은 할 수 없을 것 같다.<sup>10</sup> 사실 <<사고전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인쇄물이다.

강의 때 보여주신 자료들:

<<구운몽>>

을사년 (1725년) 금성(나주) 남문 간행판

고소설 간행본으로서는 최초의 것이다

<sup>9</sup> 방각본 (坊刊本): “처음에는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므로 방각본이라고도 한다. 중국의 당나라 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송나라 때에는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방각본은 1541년(중종 36) 명례방에서 간행한 《한서열전(漢書列傳)》이 처음이라고 하나 기록상으로 확인된 것은 1576년(선조 9) 간행된 《고사촬요(攷事撮要)》이다...[방각본 출간의] 경향은 임진왜란으로 일시 침체되었다가 17세기 말에 와서 호남지방에서 다시 시작되었다...이때 간행된 것으로는 《사요취선(史要聚選)》 《동몽선습(童蒙先習)》 《명심보감초》 《고문진보》 《농가집성(農家集成)》 《구황보유방(救荒補遺方)》 등이 있으며, 후기에는 소설류가 많이 간행되었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10</sup> 사고전서 (四庫全書): “중국에서는 유서(類書)의 편집이 성행하였는데, 청나라 때에도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이 있으나, 유서는 원문을 모두 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미흡한 느낌을 가졌던 건륭제(乾隆帝)가 1741년에 천하의 서(書)를 수집한다는 소(詔)를 내려...1781년에 《사고전서》의 첫 한 벌[을] 완성되었다...수록된 책은 3,458종, 7만 9582권(각 벌의 서적 수는 동일하지 않음)에 이르렀으며, 경(經)·사(史)·자(子)·집(集)의 4부로 분류 편집되었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열녀춘향수절가>>

20세기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

<<창선감의록>>

국문본은 필사본을 복사한 것으로 필사자가 ‘서상궁’으로 되어 있다. 삼베로 된 표지를 가지고 있는데, 표지와 내용이 아무 관계 없다.

이상경: 안의 내용을 남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

책의 크기가 크다. 인쇄되어있다.

1) Young-Hee Sohn: 저자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책이 만약 한국에서 출판되었다면 한국책으로 봅니까?

임형택: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책을 한국에서 간행했을 때 이를 서지적으로는 한국본이라고 하지요. 일제시기 검열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간행된 매천집의 경우에도 서지적으로는 중국책인 것이 맞습니다.

2) Yuming He: 한국의 서적사(書籍史)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도 출판혁명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형택: 논의는 나온 바가 없지만, 출판의 발전 단계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이의 유입이 첫 단계, 목판인쇄가 시작된 것이 두 번째 단계, 출판이 일반화된 고려시대, 마지막 단계는 고려 후기지요. 서지학에서 이야기하는 권자본<sup>11</sup>을 보면, 반심은 고려 후기의 책에서 발견됩니다. 책의 결정적 변화는 방각본이지만 이를 인쇄혁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식의 인쇄 방식이 시작된 것은 20세기의 일로, 현재에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장본, 판권 개념이 생겼습니다.

3) Yuan Zhou: 중국의 경우 활자는 처음에는 점토, 양철로 만들어지다가 이후에 납과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임형택: 활자본의 종류는 동활자, 목활자, 흙활자, 바가지활자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리로 만든 활자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sup>11</sup> 권자본 (卷子本): “도서장정(圖書裝幀)의 가장 오래된 형태의 책이다. 글이나 그림이 그려진 종이를 길게 이어 글이 끝나는 쪽에 축(軸)을 붙이고, 둘둘 말아서 가장 곁쪽이 되는 부분에 표지를 겹붙여 끝에 끈을 달아 감도록 되어 있다... 권자본은 고대(古代) 이집트·그리스·로마 등에서 지혁(紙革·파피루스)이나, 양피지(羊皮紙)에 쓴 고문서에서도 볼 수 있고, 중국 후한시대(後漢時代)에 종이 발명된 이후 기본적인 도서장정의 형식으로 사용되었다. 한국에서도 통일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 전기의 도서에서 권자본을 볼 수 있는데, 활자가 발명되고 절본(折本)이 나오면서 점차 없어졌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4) Yuming He: 서양의 경우 활자가 많이 사용되고 한국이나 중국의 경우 목판(woodblock)이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문자의 수와 모양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중국어의 경우, 글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활자를 만드는 일은 매우 복잡한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중국어의 경우, 활자는 수평적으로 열을 지우는 일이 쉽지 않아서 활판의 경우 글자 크기 등에서 실수하기가 쉬웠습니다.

임형택: 한국에서 목판본을 선호한 이유는 한번 제작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이고, 제작이 비교적 간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찍어낸 것은 족보인데, 한 세대에 하나씩 찍어냈지요. 그렇지만 족보의 경우, 세대마다 새로운 이름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목판본 보다 목활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5) Yuming He: 중국 역시 동활자가 제일 좋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가장 보편적인 것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청나라 황실에서 제일 좋은 종이로 친 것은 조선에서 수입한 종이였다고 합니다.

6) Young-Jun Lee: 프랑크 모레티의 사회학적 접근으로 보면, 17-8세기의 한국의 책 보유량이 인구당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당시의 소장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형택: 책의 소장량을 통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7) Young-Jun Lee: 책의 출판은 기술력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력과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책의 생산과 보급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임형택: 중국이나 한국은 기본적으로 ‘문’을 숭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책 소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류층의 경우이고 사회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책 소장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구텐베르크 식의 활자의 발견이 한국에서는 그대로 책의 대중화로 연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8) 정근식: 당시의 책 소장 형태가 개인별 가계별 소장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서원 관아 등에 소장된 것이 많았습니까?

임형택: 개인 소장과 공적 소장 중 어느 쪽이 더 우세했는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조금 덧붙이자면, 서원은 어느 정도 책을 소장하고 있었지만 관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최고의 책 소장처는 왕실 규장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의 상류층 가문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관이 책 수집가에 대한 언급한 논문이 있습니다.

9) Juchan Fulton: 바인딩(선장본)은 언제 없어졌습니까.

### 북한문학 전통 안에서의 황진이: 일반토론

김재용: 고전문학 중 <<황진이>>, 특히 홍석중의 <<황진이>>를 읽기 위한 주변 사항들에 관한 이야기로 이 세션을 시작하고자 한다. 일전에 홍석중의 <<황진이>>를 읽고 감명 받아 글을 한 편 썼는데, 그것을 읽은 출판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황진이>>의 출판을 돕게 되었다.

그간 남과 북을 오가면서 홍석중을 두 번 만날 기회가 있었다. 북한에서 한 번 만났고 또 2006년 홍석중이 남한 방문을 했을 때 또 한 번 만났다.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 그의 작가세계, 북쪽 문학세계, 지식인들의 세계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홍석중은 자신이 분단의 덕을 봤다라는 말을 한다. 자신의 <<황진이>>가 북쪽에서는 거의 반응이 없었는데 오히려 남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남한에서 얻은 유명세로 인해 북쪽에서 자신의 문학가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김재용] 오히려 홍석중의 덕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싶다. <<황진이>>를 통해, 북한문학의 연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던 사람들에게 북한문학의 색다른 면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황진이>>의 남한출간 이후 북한문학에 많은 희망이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

<<황진이>>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것은, 황진이라는 작품을 생산하게 된 상황, 조건들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썼나, 혹은 왜 이렇게 써야만 했나 등의 질문을 창작 상황들을 고려해가면서 던져야 이 작품의 지평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북한의 지식인들을 거래말대사전작업, 작가동맹 사람들,<sup>12</sup> 문학연구소를 통해 만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들을 살펴보면 크게 탈냉전적 지식인과 냉전적 지식인이라는 두 부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냉전주의 지식인은 고난의 행군 등 북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미국의 봉쇄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와 반대로 탈냉전적 지식인들은 이를 북한 내부에서 과거부터 계속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현존 사회주의의 붕괴와 북한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홍석중은 탈냉전적 지식인이라는 틀 안에 존재하고 그의 문학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북한문학의 흐름에서 예외적이고 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부패, 무능 등에 대한 그의 고민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지식인 사회에 나타난 하나의 큰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sup>12</sup> 작가동맹: “북한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 하나]. [여기에] 망라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조선미술가동맹·조선무용가동맹·조선음악가동맹·조선영화인동맹·조선연극인동맹·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약칭: 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해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이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북한의 모든 작가·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 주체의 구성단계로부터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1) Sunyoung Park: 홍석중은 북한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의 독서경향과 홍석중 수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김재용: 작가동맹에서 홍석중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일반 사람들의 경향은 알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북한 사람과 대화를 해 보았고 그를 통해 짐작을 해 보건대, <<황진이>>는 매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홍석중의 북한 내 지명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 Young-Jun Lee: 북한문학 중에서 이렇듯 성적묘사를 노골적으로 한 작품이 처음이 아닌가요? 어떻게 북한에서 적나라한 성적묘사를 표현한 작품이 출간될 수 있었는지요?

김재용: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북쪽은 당의 선전과, 내각 (예술 전담), 작가동맹, 이 세 군데에서 검열을 하거나 출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중 작가동맹 쪽 영향력이 크지요. <<황진이>>가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기생이야기 (계급적 의미에서) 라는 특성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3) Youngjoo Ryu: 북한 문학을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 있다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김재용: 바흐젠의 이론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흐젠의 다성성 (polyphony) 개념이 스탈린 시대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를 북한문학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 검열과, 장르의 문제-왜 남한에 없는 장르가 북한에서 생겨났는가-등에 대한 고민도 북한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Hae-Young Kim: 북한에서 작품이 선정, 출판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나요? 고난의 행군 이후 보이는 지식인들의 흐름들과 작가동맹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김재용: 심의를 통과하면 출판하는데 최종심의를 작가동맹 평론국장이 합니다. 물론 심의 과정 중에 많이 고치기도 하지요. 동구의 사회의 문학적 기반은 교회와 작가동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북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작가동맹의 역할이 더 크지요. 작가동맹은 자신들을 당의 동반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러한 명분상의 언술을 통해 그 나름의 운용공간을 확보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북한작가들은 자신의 생각을 즉각적으로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쌓아놓고 다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 때문에 자기 성찰적으로 성장한 능력 있는 북한 작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5) Juchan Fulton: <<황진이>>의 세 가지 판본 비교로 인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남한판의 출판 외양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재용: 서문이 있는 판본을 읽어보면 판본 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아직 뭐라 단정 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한본은 이익을 늘리기 위해 활자를 키우고 위해 2권으로 나눈 것으로 안다.

- 6) Bruce Fulton: 북한 책에는 일반적으로 해설을 뒤에 붙입니까?  
김재용: 일반적으로 해설이 없습니다.
- 7) Jina Kim: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책을 구입합니까?  
김재용: 회사에서 배포하거나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구입합니다.
- 8) Jina Kim: <<황진이>>를 대중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재용: 북한에는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구분이 없습니다.
- 9) Young-Jun Lee: <<황진이>>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휘들이 등장하는데 북한의 독자들이 이를 쉽게 즐길 수 있을까요?  
김재용: <<황진이>>에는 남북 어휘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단어들이 있고, 이는 북한 국어학자들에게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10) Serk Bae Suh: 책 판매량이 많으면 성과급을 받으니까?  
김재용: 월급작가와 일반작가가 나뉘고, 판매량에 따라 성과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작가동맹에 헌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작가동맹 내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요.
- 11) Ji-Eun Lee: 북한작가들은 외국 작가들의 책을 어떻게 읽는지?  
김재용: 북한 내에서 외국문학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1960년대 상당한 수준의 세계문학전집 출판되었습니다. 남한과 비교해봤을 때 번역의 질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남에 비해 자금, 시간적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질이 높은 것이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체문학이 등장하면서 다 불타버렸지요.  
1980년대 북한 작가들이, 왜 우리 작품들에는 감동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정책적 해빙기가 오면서 내용적 측면으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인해 작가들은 다시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서 작가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은 대체로 세계문학을 읽는 것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12) Ji-Eun Lee: 세계문학이라 함은 어떤 문학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김재용: 남에서 나오는 세계문학전집의 종류와 비슷한 것입니다.
- 13) Sunyoung Park: 북한에서는 어떻게 작가가 등단하게 됩니까?  
김: 63문학상등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작가동맹을 통해 작품을 싣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14) Aimee Kwon: 죽은 작가와 달리 생존해있는 북한작가를 다룰 때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재용: 사실 어려움이 크지요. 제가 쓴 한설야에 대한 책은 그가 죽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가가 살아 있는 경우 검열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지요.

15) Kelly Jeong: <<황진이>>에서 미래 지향적인 놈이의 죽음은 홍길동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생각해봐야 하는지요. 한(恨)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재용: 삶의 곁과 그늘을 읽어내고 이것을 더욱 추상화된 언어로 표현해 낼 수 있을지...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또한 홍석중 작가론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놈이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금이와 괴퐁이의 등장과 관계도 이 작품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진이와 놈이 대신 이금이와 괴퐁이를 이용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와 연결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북한문학의 독법으로 마지막 10프로는 볼 필요 없이 앞의 90프로만 제대로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독법으로 보면 진이/놈이 플롯과 함께 이금이/괴퐁이의 플롯도 중요해지지요. 진이/놈이 플롯과 함께 같이 읽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19일 오후 5:15-6:00

김재용 정병설 대담

#### 절대적 가치의 상대화

정병설: 많은 역사소설의 디테일이 과거의 현실과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역사소설을 잘 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황진이>>를 읽고 조선 현실과 황진이에 대해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열다섯 살짜리 동기”라는 표현이라든가, 아직 수입되지 않은 <<삼국지>>를 읽고 있다든가 하는 등등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별로 걸리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견물생심, 송구영신 등의 익히 알고 있는 표현들을 기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의미로 쓴 경우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읽혔고,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본 북한은 냉전시대의 국가가 아니라, 왕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황진이>>는 조선시대의 영웅소설과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경업전>>을 보면 임경업이라는 영웅을 통해 작가는 병자호란에서 청과 싸워 패배할 수 밖에 없었던 조선의 관료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황진이>>도 규방에서 임금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표현을 두고 보면 <<임경업전>>이 주는 것과 비슷한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언어로 임금까지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절대적 가치에 대한 부정 등의 문제들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김재용: 절대적 과거를 상대화하는 것이 바흐쥬의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황진이에도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경업전과 황진이에도 가치의 상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진이는 민족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있지요. 흔히 북한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조국통일 민족의 사항에 구체적 사색 없이 무반성 무개념적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있는데 <<황진이>>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민족이라는 절대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임경업전>>과 달리 황진은 국가나 민족보다는 인민, 사회, 다른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설: 이 작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장면은 황진이가 기생이 되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용: 황진이 자신의 삶의 세가지 길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왜 그녀가 기생이 되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나 하는 점을 보여주는 장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문학의 리얼리즘과 낭만주의

정병설: 이금이와 괴퐁이의 사랑은 리얼리즘과 달리 통속적, 낭만적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거리가 멀고 낭만주의적 작품이 아닐까요.

임형택: 혁명적 낭만주의 강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설: 북한문학의 조류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황진이 낭만적 통속적이어서 의외였습니다. 이러한 낭만성이 현 북한에서 한 조류를 이루고 있습니까?

김재용: <<황진이>>는 북한 일반 작품들과 많이 다른 처음 보는 역사소설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읽은 북한의 대부분의 역사소설은 민족의 문제와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 작품은 다르지요.

<<황진이>>를 읽는 하나의 독법으로 알레고리를 해석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안경이 주는 위선 같은 것 말이죠. 북쪽 인민들에게는 선글라스가 전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남자들의 선글라스 착용이 드러내는 권위에 대한 동경이 아닐까 하는데, <<황진이>>에서 보면 승복, 사모관대, 현대인의 안경 등에 대해 이 부착물들이 가지는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성격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Serk Bae Suh: 1980년대 남한에서 나온 낭만성과 민족의 문제를 다룬 많은 작품들과 <<황진이>>를 같이 놓고 살펴볼 수 있을까요?

김재용: 당시 80년대 문학이 <<황진이>> 같은 성숙하고 내공 있는 작품을 쓸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중은 황석영의 <<장길산>>을 보긴 보았지만 그와의 연관성은 부정했습니다.

임형택: 부정했다고 했지만, 동시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김재용: 어쨌든 홍석중은 극구 부정했습니다.

Young-Jun Lee: 몇 십 페이지 읽었을 때는 아주 재미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가서는 좀 실망했습니다. 플롯이 해결이 안되고, 작가의 목소리가 튀어나오면서 플롯이 와해되었습니다.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전망의 잠재성을 언어적 수사로 담아놓는 것은 20세기 한국문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진이>>에게서 보이는 화려한 언술도 장식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 전망의 부재, 현실성이 부재한 내용을 말의 풍부함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 6월 19일 오후 6시 이후. 19일의 마지막 세션

Kyeong-Hee Choi: 이 시간은 작품의 사실적 부분과 소설적인 것의 차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비공식적인 세션입니다.

#### 홍명희와 홍석중 간의 문학적 유대성?

임형택: 황진이라는 소재가 근대 작가들에게 매력적인 소재였던 것 같습니다. 일제 시대-해방 이후를 거쳐서 황진이를 소재로 한 작품이 꽤 많이 보이네요. 벽초 홍명희와 함께 한 좌담회에 이태준, 이원조 등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황진이가 다뤄졌습니다. 홍석중 역시 조부의 황진이에 대한 관심을 의식했던 것이 아닐까요?

의견: 작품을 읽으면서 홍명희의 <<임궫정>>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은 역사적 자료들을 이용, 역사적 근거에 입각하여 야담적인 것을 끼워 넣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임형택?: 임궫정은 역사적 사료들을 연대기적으로 살려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점에서는 홍석중의 소설이 조부의 소설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홍명희의 <<임궫정>>을 보면 소설 진행에 있어 작가가 개입합니다. 그가 신문학 일세대인 이광수, 최남선보다 선배 격이고 이광수에게 독서 지도를 (톨스토이에만 빠져있는 이광수에게 도스토예프스키 읽을 것을 권함) 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홍명희가 근대소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등장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궫정이라는 소재에 가장 잘 맞는 이야기투를 찾으려고 오랫동안 고심한 결과가 아닐까요. 홍석중이 조부의 이러한 창작방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영: 홍석중이 얼마나 사료연구를 했는지. 했다면 바탕으로 한 사료와 [소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 황진이에서 풍자를 읽는 방법?

질문: 북한 최고의 권력자를 풍자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을 북한 독자들은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읽었을까요?

대답: 그렇게 읽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김정일과 북한에서의 “지도자 동지”는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북한 독자들의 소설독법에 그대로 투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진이의 페미니즘적 특성?

질문: 이사종과의 계약결혼을 두고 생각해 보면 황진이를 최초의 페미니즘 운동가로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볼 수 있을까요?

김재용: 홍석중의 <<황진이>>가 나올 무렵 남쪽에서는 전경린의 <<황진이>>가 출판되었습니다. 전경린 <<황진이>>는 이사종과의 계약결혼이라는 소재에 주목하여 창작한 것이 특징이지요.

장자상속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는 17세기에 확립되었습니다. 황진은 16세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확립되기 이전을 그린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일까요? 이 작품에 보면 제대로 된 남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가부장제가 확립되기 이전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요.

임형택: 고려시대부터 가부장제 사회이고 17세기 이후에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도덕률은 당시에도 존재했으나 상속제에서 여성이 과히 불리하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 <<미암일기>>는 당시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 이것에 의하면 황진의의 계약결혼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sup>13</sup> 일반적인 기생은 관에 예속되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황진이가 자유롭게 그려진 것은 어느 정도 허구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황진의의 특수성일 뿐, 당시 여성의, 혹은 기생의 자유스러운 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개성의 문화적 위치는?

정병설: 개성이 가지는 문화적인 위치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한양과 대립적인 구도를 가졌습니까?

임형택: 개성은 일종의 특구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과 서울의 대립구조를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 한양과 개성이 직접적으로 대립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양은 유교가 직접적이고 강하고, 개성은 유물론적으로 더 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회주의가 6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것을 말할 때 개성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개성이라는 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20일 오후 1:30-3:30

임형택, “한국 17세기 규방 소설의 성립, 그 이후의 소설사”

임형택: <<창선감의록>>을 통해 규방 소설의 성립을 소설사적으로 생각해보자.

<<창선감의록>>은 16세기 명대 사회 벌열가문 내부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엄송의

<sup>13</sup> 미암일기(眉巖日記): “...현재 남아 있는 일기는 1567년(선조 즉위년) 10월 1일에 시작되어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대략 11년간의 [미암 선생의] 친필일기[이다]... 원래의 것은 조선 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 사료(史料)로서의 가치가 크다. 자신의 일상생활과 당시의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경외(京外) 각 관서의 기능과 관리들의 내면적 생활 및 사회·경제·문화·풍속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독재권력으로 인해 가문의 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장자와 차자의 문제, 처첩의 갈등이 두드러진다.<sup>14</sup>

중국은 중세에 있어 보편적인 공간이었다. 당대의 조선에서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을 중국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장희빈과 인현왕후와 같은 궁중 내 혹은 양반 가문 내의 처첩간의 갈등을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쓸 수 있었다.

중세사회에는 처첩 갈등을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첩으로서 처를 삼지 말라는 규약은 춘추시대부터 내려온 것으로 개인의 애정 행각으로 떠넘길 수 없는 체제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창선감의록>>의 축소판이 <<사씨남정기>>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고대소설을 두고 보통 천편일률적이다, 권선징악적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한 정의는 맞지 않다. 권선징악이 되려면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선인계/악인계로 등장인물이 이원화되어 있긴 하지만, 완전히 전형적이지는 않다.

규방소설은 ‘국문 장편소설’을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문학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국문 장편소설’의 출현은 문학사상 초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규방소설은 문벌에 속하는 인물이 작가이고 그 작품세계 역시 문벌들의 생활의식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여성을 규방 속에 속박해 놓고서 살짝 풀어 주어야 한다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산출된 것이므로, 자유를 동경하는 여성의 정서가 소설 형상에 반영되어 있다. 여성주인공의 자아의식이 싹트는 모습을 보이고 또한 인격적 완성을 향해 소설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교양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편, 국문 장편소설의 형식은 지금까지 문학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규방여성을 제일차로 포섭했을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까지 확보하였다. 문학사의 획기적 전환, 소설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보게 된 것이다. 사실, 19세기까지 소설의 중심은 규방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은기우록>><sup>16</sup>,

---

<sup>14</sup>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필사본. 2권 2책. 규장각도서, 국립중앙도서관·고려대학교서관 소장. 14회장(回章)의 한문소설로 국문 번역본인 《창선감의록(倡善感義錄)》이 있다. 작품의 구상과 묘사가 치밀하여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에 버금가는 소설로 꼽히기도 한다. 내용은 중국 명(明)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일부다처와 대가족제도 아래서 일어나는 가정의 풍파, 즉 제2부인 소생(所生)을 제1부인이 시기하여 죽이려 하는 줄거리로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이 주제이다. 저작 연대는 대략 《구운몽(九雲夢)》 《사씨남정기》와 비슷한 시대로 추정[된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15</sup>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남정기(南征記)》라고도 한다. 확실한 창작 연대는 미상이나, 숙종이 계비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폐위시키고 희빈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데 반대하다가 마침내 남해도(南海島)로 유배, 배소에서도 흐려진 임금의 마음을 참회시키고자 이 작품을 썼다고 하므로, 1689년(숙종 15)에서 작자가 세상을 뜬 1692년(숙종 18) 사이에 썼을 것으로 본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16</sup>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 “숙종-철종 사이에 씌어진 것으로 짐작되며, 모두 18권 18책이나 되는 대하소설[이다]...명(明)나라 가정(嘉靖) 연간에 양주의 강현촌에 위지덕이란 자가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모았으나, 아내인 양씨는 마음이 고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양씨는 꿈에 문창성(文昌星)을 보고 아들 연청을 낳았는데 연청 또한 마음이 어질어, 아버지와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천수석>><sup>17</sup>, <<옥루몽>><sup>18</sup> 등 여러 작품이 나왔고, 광범위한 여성 독자라는 기반이 확고했기 때문에 19세기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

1) Kelly Jeong: 딸이나 며느리를 가르치는 역할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임형택: 대개 여성이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이>>에서처럼 종인데 선생 노릇을 하는 할멈과 같은 존재도 많았을 것입니다.

2) Sunyoung Park: 조선에서 문벌 제도가 강화되면서 여성을 위한 규방 소설이 생겨났다면, 중국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임형택: 중국은 조선보다는 덜 폐쇄적인 사회였지만,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에서는 소설이 훨씬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방 소설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병설: 조선의 경우, 규방의 글 선생으로 ‘글할매’가 있었습니다. 글할매는 <<훈서>>와 같은 것을 베끼게 하면서 글을 익히고 교양을 가르쳤습니다. 혜경궁 홍씨의 글 선생은 작은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임형택: <<탁소천하>>에 보면 예향이라는 여자가 언문의 청탁고저를 잘 알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 한 가문의 어린 며느리를 보좌하여 집안 살림을 잘 이끌었다고 하지요.

4) Sunyoung Park: <<창선감의록>>의 축소판이 <<사씨남정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작품 사이에 작가적 관계가 있었나요?

임형택: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

뜻이 안 맞았다. 그는 유환을 구해내고 그 고을 지현(知縣) 백양의 딸과 약혼하였다. 양씨가 죽자 위지덕은 녹운이란 기생을 후취로 맞았다. 그녀는 전설의 소생인 연청을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남편으로 하여금 아들을 학대하도록 한다. 연청은 위기에 빠진 약혼녀를 구하고 벼슬길에 올라 성공하여, 아버지도 역시 벼슬길에 오르도록 한다. 1967년 1월 1일부터 《중앙일보》에 연재된 바 있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17</sup> 천수석 (泉水石): “국문 필사본. 9권 9책...숙종~철종 연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장편 가정소설이다. 내용은 중국 당(唐)나라 말엽을 배경으로 주인공 위보형과 설소저 및 이소저와의 연애담, 그리고 이에 결들인 간신들의 음모와 결혼 후 그들을 둘러싼 갈등을 그린 이야기로 엮은 애정소설의 성격을 띤 작품이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18</sup> 옥루몽(玉樓夢): “상·중·하 3권 3책. 64회로 된 장회소설(章回小說)이다. 작자가 숙종 때의 남익훈(南益薰)이라는 설, 홍진사(洪進士)라는 설, 헌종 때의 남영로(南永魯)라는 설 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불교적 인생관에 바탕을 두고 일부다처의 애정생활을 미화한 장편소설이다. 주제와 줄거리가 《구운몽(九雲夢)》과 비슷하며, 등장 인물의 성격묘사 등에서는 《구운몽》보다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1915년 회동서관(匯東書館) 발행의 한문본이 있고, 국문본이 사본으로 전[한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5) Hyun Suk Park: 전기소설<sup>19</sup>과 지식인들을 위한 소설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규방소설은 권선징악적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운영전>> 같은 전기소설은 한문소설이지만, 여성화자가 등장하여 여성의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특이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규방소설과 전기소설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하는지요?  
임형택: 운영전은 규방소설과 전기소설의 중간적 형태입니다.

6) Ross King: 야담을 읽을 때 보면 항상 나오는 한국적인 한문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변체한문’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한국도 그런 문체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요?

임형택: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야담의 문체를 변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것인 것은 맞지만, 한국적인 생활을 그리려면 한국적인 문체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식의 백화체<sup>20</sup>라고 해야 할까요. 변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한문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화된 한문체라고 봐야 합니다.

7) Ross King: 이런 [‘변체한문’ 같은] 것이 왜 연구되지 않았습니까?

임형택: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문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가 없이는 안 되지요. 이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느끼는 것이지 논문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8) 이상경: 모든 규방 소설의 배경이 중국입니까? 그렇게 배경을 삼은 데에는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까?

임형택: 맞습니다. 전기소설은 한국이 배경인데, 국문장편소설은 전부 중국이 배경입니다.

<sup>19</sup> 전기(傳奇) 소설: “원래는 중국고대소설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말이나, “국문학에서 전기소설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좁은 의미로는 현실의 인간생활을 떠나 천상(天上)·명부(冥府)·용궁(龍宮) 등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다룬 소설을 가리키는데, 《금방울전》 또는 《능견난사(能見難思)》라고도 하는 《금령전(金鈴傳)》과 《금오신화(金鰲新話)》 《삼설기(三說記)》 등이 모두 전기소설에 포함된다. 넓은 의미로는 환상적인 세계를 무대로 하여 기이한 사건이 풍부하게 전개되는 소설은 물론이고, 비현실적인 무용담(武勇譚)이나 연애담의 요소를 지닌 소설을 모두 전기소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20</sup> 백화문(白話文): “[백화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북방어(北方語)를 기초로 하고, 일정 시대의 구어와 근접하여, 일반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전문학 가운데 당(唐)의 변문(變文), 송(宋)·원(元)·명(明)·청(淸)의 화본과 소설 그리고 기타 통속문학작품은 대부분 백화로 씌어졌다...물론 당시의 사대부들은 백화로 씌어진 문장을 경시하였다. 하지만 문법을 몰라도 아는 한자만 있으면 말하는 대로 적는 백화문이 일반민중들에게는 편리한 표현수단으로 자리잡았다...5.4 신문화운동 때, 백화로 씌어진 문학작품들의 역사적 지위를 긍정하는 한편, 현대의 구어(口語)를 기초로 하는 백화를 제창하여 신사상을 표현하고 신문학을 창작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9) Kyeong-Hee Choi: 규방소설의 배경을 중국으로 한 것은, 요즘 드라마의 배경이 파리, 유럽, 아프리카 등을 포함하는 것처럼 이국인 것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성이 있을까요?

임형택: 당시의 독자나 작가들에게는 중국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큰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공간으로서의 중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또 조선으로 설정해놓으면 막연하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정해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에서는 중국배경의 소설은 창작소설이 아니고, 중국의 번안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조선에서는 배경은 중국이지만 전부 한국 창작이지요.

10) Sunyoung Park: 근대에 들어와서 고전소설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한 어떤 연구가 있습니까?

정병설: 이주영, 권순근 선생 등의 활자본 연구. 연세대, 원광대의 연구 등이 있습니다. 여성작가의 작품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지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품들도 많이 발굴되고 있고,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나오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oung-Jun Lee: 1939년 <<삼천리>>지에 보면 서울의 새 책과 출판업의 통계가 나옵니다. 고전소설의 활자본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담에 수록되어 있는데 <<춘향전>>의 경우 연간 만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병설: 그 대담에 대해 천정환 선생도 소개했으나, 너무 과장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11) Ji-Eun Lee: 소설독자층이 규방여성에서 사대부 남성으로 확대되었다고 임형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대부 남성 독자들은 중국소설을 보는 독자들과 겹쳐지는가요?

임형택: 그것은 따져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문장편소설은 아무래도 지적 수준이 높지 않은 남성들에게 읽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12) Youngjoo Ryu: 대학원에서 고전문학사 수업을 처음 듣고 문학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전문학사는 근대국가의, 20 세기의 망령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20 세기를 실패로 규정하고 고전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태도를 보고 실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임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전문학을 연구하시면서 갖고 계신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임형택: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20 세기의 멍에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이지요. 용어로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대를 식민지로 통과한 것은 우리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19-20 세기의 세계사적인 하나의 과정이고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통과한 것을 철천지 한처럼 생각하는 것은 열등감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식민지배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 아닐까요?

한국사회는 지옥도, 낙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사구시’가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관을 완전히 배제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지향이 없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Young-Jun Lee: <<황진이>>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고전을 많이 읽은 입장에서 홍석중의 <<황진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고전을 잘 살리고 있는 현대 작가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Kyeong-Hee Choi: 한자문화권에서 소중화라 불리면서 한문학을 발전시켜 오던 게 조선사대부가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글문화로 갑자기 전환을 해서 1세기 조금 넘었는데, 한반도 지식인들이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도달한 급수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형택: 홍석중의 <<황진이>>는 다루기 힘든 소재를 잘 소화해서 인물을 잘 그려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이>>의 풍부한 우리말의 구사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요설이 될 수 있겠지요. 약간은 경계를 넘은 것 같기도 한데... 자기 할아버지보다는 급수가 낮다고 봅니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소설을 써낼 수 있는 작가는 남한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서사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근대 이전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의 비교연구도 필요하고 봅니다. 노신의 <아Q정전>과 염상섭의 <<만세전>>을 비교해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봅니다. 왜 그것이 성공을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물음이라는 점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노신의 경우는 제목부터 중국의 엄청난 문화적 전통에 대한 도전이지요. 중국의 수천년 문예전통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염상섭은 자기의 문화전통에 대한 정면의 승부수를 건 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전통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한국의 근대문학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비껴갔습니다. 이것이 한국문학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4) Hyun Suk Park: 한국고전문학은 고루하다는 선입견을 깬 것이 야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담에 대한 해석은 주로 이후 상공업의 발달, 일반 시민의 성장, 개인의 발견 등 근대사회를 예견하는 면들을 찾는 것이 주였던 것 같고요. 이런 근대적인 가치관을 반성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야담 작품들을 좀더 새롭게 해결할 여지가 있는지요?

임형택: 조선의 야담은 형태는 한문으로 쓰였지만 중국적인 한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회가 별로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서는 야담과 같은 형태가 나올 수 없지요. 따라서 야담은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야담을 통해 근대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꼭 탈근대적인 현재를 살고 있다고 해서 근대적인 가치들을 무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담 속에서 너무 근대적인 가치를 보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흥미본위나 통속적인 해석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2008년 6월 20일 오후 3:45-5:00 pm**  
**Byung-Sul Jung on Life-accounts by Kisaeng**

정병설: 박사 논문을 쓰면서 <<완월회맹연>>을 읽었다.<sup>21</sup> 180책 모두를 읽는데 매우 시간이 들었다. <<완월회맹연>>을 읽으면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을 가지고 조선문화가 가진 주변부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현재 읽고 있는 작품은 <<한중록>>이다. 읽은 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읽다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여성의 울분, 배신, 슬픔 등등이 모두 나에게 다가온다. 나는 이 작품이 조선시대의 한글 여성 문화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내 연구를 통해 이 조선의 주변부 문화가 가지는 운명을 극복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수록>>이라는 자료를 찾아 주석을 붙이고 해석을 가했다.<sup>22</sup> 기생 자신이 쓴 글을 담은 <<소수록>>은 기존의 기생에 대한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그 문집을 읽으면서 기생을 공부하는 것은 낭만적인 것도 아니고, 세련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현실을 보는 일이라고 알게 되었다. 그 깨달음을 <<나는 기생이다>>라는 책을 통해 표현하였다.

<<나는 기생이다>>는 전부 4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기생의 일생: 동기에서부터 노기까지의 일생, 2장 기생 놀음의 현장, 3장 기생이 보는 눈, 기생을 보는 눈. 기생 스스로가 몸을 어떻게 보는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내용, 4장, 기생과 편지. <<소수록>> 전체가 기생의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편지형태로 담긴 것이 많다.

“해주기생 명선의 인생”을 잠시 읽어보자. 1860년대 자료로 추정한다. 기생이 되면 교방에 들어가 춤을 배우고 보통 7-8세에 기생이 된다. 그런 면에서 홍석중 선생님이 동기를 15세로 본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명선은 12세에 성혼을 한다. 이 성혼은 기생에서 있어 성관계를 맺는다는 말이다. 12살 난 명선은 해주 감찰사를 맞는다. 12살 동기를 상대하는 일은 당시에

---

<sup>21</sup> 완월회맹연 (玩月會盟宴): “180권 180책. 필사본. 숙종~철종 연간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낙선재문고(樂善齋文庫)에 들어 전해지는 대하소설이다. 내용은 중국 명나라 영종(英宗) 때의 승상 정한(程翰)과 후손 정잠(程潛)·인성(仁星)·몽창(夢昌) 등 4대에 걸친 많은 자손들의 입신출세와 일부다처 생활에서 일어나는 가정적 비극 및 궁중 안에서 벌어지는 음모와 모략, 그리고 여기에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하여 활약하는 등 복잡한 줄거리로 엮어져 있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sup>22</sup> 소수록: 총 14편의 글이 실려 있는 기녀문집으로, 총 125쪽에 달하는 한글 필사본이다. 2001년 3월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정병설(鄭炳說)이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실에서 찾아내 일반에 공개하였는데, 첫째 글에 청(淸)나라의 연호인 '대청 도광 이십오'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1894년(고종 31)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기생 명선이가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가사 《자술가》와 한양 손님과 기생이 나누는 《문답가》, 늙은 기생이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탄로가》 등 이색적인 작품도 여러 편 들어 있어 조선 후기 기녀들의 삶과 의식·소망 등 기녀의 생활사와 여성문학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기녀 가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있어서는 천인공로할 이야기는 아니나 기생은 매우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신고식은 모욕과 수치심을 통해 기생 단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생은 첫 관계를 맺는 순간 사랑을 버린다. 때문에 기생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수록>>을 연구하면서 한글과 한문 자료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한문자료는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전거를 많이 찾게 되어 공부할수록 전거가 쌓이는 데에 반해, 한글은 그러한 전거의 축적의 과정을 만들기 힘든 것 같다. 한문의 한글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변하여 한글을 읽어도 전거가 무엇인지 찾기가 매우 힘들고 찾아 내더라도 그 적용범위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질문: 기생은 어떤 방법으로 퇴기가 됩니까?

정병설: 납속을 해서 은퇴하는 방식이 있고, 궁중의 약방, 상방 등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년은 60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기생 만덕은 상당히 이름이 있던 기생이었는데 제주가 큰 기근이 났을 때 구휼에 기여하여 상을 받고 기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휼에 나섰다는 설도 있지요.

임형택: 병을 핑계로 해서 기적에서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2) 질문: 황진이와 경우 전해지는 일화를 보면 자기표현이 강한 기생이었던 것 같은데 황진이와 남긴 시조를 보면 그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평범한 기생의 이야기는 시조 속에서 보면 매우 신랄하고요. 한글 소설에서의 여자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임형택: 허생의 처, 흥부전의 흥부의 아내 등등을 생각해 보면, 흥부의 아내는 가솔이 굶은 것은 내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가정의 경제문제는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여자는 남자보다 현실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설적 허구가 아니고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소설의 여성은 중국 소설에서 보이는 여성보다 매우 현실적이고 활달합니다.

정병설: 황진이 시조, 한시에서 남성의 눈을 만족시키는 시들만 남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남성편집자의 시선으로 걸러진 것만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질문: 기생오라비라는 말은 기생에 기대어 사는 남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기생은 기본적으로 관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생오라비는 어떠한가요?

정병설: 기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관적에 올려진 기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생도 있고 또 기생이 아닌데 기생처럼 활동하는 여인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기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기생집에 들어갈 때 접대할 때 인사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기생서방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한양의 종류도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나는 기생이다>> 책의 보론에 부가설명으로 다루었습니다.

4) Young-Jun Lee: 한국문학의 일편단심, 충, 효 및 <<춘향전>>의 모델인 열부는 위로부터 내려온 관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심청전>>을 읽다 보면

조선시대에는 인신매매 문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상적으로 감추기 위해 효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황진이 경우도 여성의 해방적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조선시대의 윤리기준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병설: 현재의 문학이라는 것도 긴장과 이완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조선시대의 문학은 그 주변부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잔편들을 가지고 당시의 시대를 역추적하는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춘향전>>이나 <<심청전>>을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역추적해서 찾아낸 것들은 현재 우리가 가진 과거의 이미지를 깨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생을 비참한, 억눌린 존재로만 보는 기존의 생각은 편향적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기생이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 여자들이 있었고요.

5) Ji-Eun Lee: 기생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대장금도 기생이고 게이샤도 기생입니까?

정병설: 대장금의 배경인 조선 중기 중종 때에 기생은 일반적으로 관청에 등록된 공식적 일을 하는 기생을 지칭했습니다. 성적인 서비스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다른 관비보다 좀더 세련된 일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적인 큰 일 (잔치) 등이 있으면 지방정부에 요청해 뽑아 올리게 하였는데 약방기생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그들은 검은색 가르마를 했고 이것은 고급의 상징이었지요 (저급은 2패, 3패).<sup>23</sup> 그렇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접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조선의 기생은 신분제의 문제인 반면, 일본의 게이샤는 경제적인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게이샤의 경우, 경제적인 목적으로 성행위와 연행을 하는 이들을 가리켰는데 일제시대 이후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일본의 게이샤의 이미지와 기생의 그것이 겹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1) 질문: 글읽기 교육으로서 규방소설을 베끼는 것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6-2) 기생의 양성과정에서 글읽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정병설: 6-1: 여성이 한글 교양을 어떻게 쌓았나 하는 질문에 예를 들어 답을 드리면 여성은 한글소설을 베끼고 혼인 시에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후에 심심파격으로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방언이 난무한 바에 비해 소설은 매우

<sup>23</sup>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遊女들을 一牌, 二牌, 三牌로 구분했다. 이들 중 二牌는 연예기는 외에 은밀히 몸을 팔아서 ‘은근자’라 불리었고, 三牌는 잡가류의 하급예능을 제공하는 한편 매음을 하는 것이 통례였다. 전통적 기생에 해당하는 一牌는 오랜 교육과 수련을 거쳐 양성되며, 자신들의 예능과 처신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서 매춘 행위를 수치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이후 하급 유녀들까지 ‘기생’이라 부르는 용어상의 인플레이가 일어나면서 이 말은 본래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三牌 그룹까지 지칭하는 뜻으로 바뀌었다... 이들의 유형적 구분과 행태에 관하여는 이능화의 <<朝鮮解語花史>> (동양서원, 1927) 참조.” 김홍규 “조선후기 시조의 ‘불안한 사랑 모티프와 ‘연애시대’의 전사,” <<한국시가연구 24>>, 42-3쪽에서 재인용.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표준화되어 있고 소설을 통한 한글의 표준화가 이미 18세기 정도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6-2) 기생의 문자학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기생 양성은 일제시대의 권번에 의해 행해진 것 같습니다.<sup>24</sup> 평양의 기생양성소에 관한 자료를 보면 기생은 상당한 수준의 해독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듯 합니다.

임형택: 여자들은 시집가기 전, 보통 정월에 소설을 많이 베껴 썼지요.

2008년 6월 21일 오후 1:00-3:00시

### Round Table Discussion: From Texts to Issues, Research to Teaching

북미 한국문학교수의 정년심사: 한국문학이 북미학계에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Jina Kim: I would like to hear some know how. How do you get through the tenure process? I would like to hear about your experiences.

Aimee Kwon: Related to failed tenure situations, I am getting mixed messages about the state of the field. We have more success than ever in terms of the number of Korean literature positions, but then there are the stories of failed tenur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contradictory story of demand and failed experiences and how to remedy it.

Question: How can we best strengthen the visibility of the field within the institution? UCLA is an example of how that has failed. A lot of programs have based their funding on external funding from Korea. The question then is how to build bridges in the department and the larger academic community. Also, the question of the larger question of the limits of the area studies model.

Kelly Jeong: Syllabus and textbook topic is something we can take on immediately. When I organize a class it feels like reinventing the wheel. I spend so much time doing that, and that is in a way a waste of individual. We could have some kind of annotated reference guide or blog on the web. I am moving from a tenure position to a non-tenure position. I was told to ignore teaching and to publish, publish, publish. I didn't feel guilty because I had no graduate students, but now I am going to a research institute so I don't want to do that anymore. So, how do we make sense of this dilemma of how to get tenure? I like the idea of a writing group but it is extremely hard to get together, so will we have to do it virtually?

Sunyoung Park: I have been teaching for seven years (five years in Korean studies), and as I go through these experiences, and one conclusion I draw about how to heighten the visibility

<sup>24</sup> 권번 (券番): “검번(檢番) 또는 권반(券班)이라고도 하였는데, 조선시대에 기생을 총괄하던 기생청의 후신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 당시 서울에는 한성권번(漢城券番)·대동권번(大東券番)·한남권번(漢南券番)·조선권번(朝鮮券番), 평양에는 기성권번(箕城券番) 등이 있었고, 그 밖에 부산·대구·광주·남원·개성·함흥·진주 등에도 각각 권번이 있었다. 이 권번에서는 동기(童妓)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는 한편, 기생들의 요정출입을 지휘하고 그들의 화대(花代)를 받아주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당시 기생들은 허가제로 되어 있어 권번에 적을 두고 세금을 바치게 하였으며, 이들 권번기생은 다른 기녀들과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of the field, we should become scholars with publications in the major publications. We should all publish with connections to other scholars. We have to build intellectual connections with colleagues. I think a journal would be premature. A syllabi and text bank would be helpful. When I first started out I had difficulty with premodern and history since they were not my specialty.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the lack of library resources at Washington University, St. Louis. If we could compile a list of Korean literature resources it would be extremely useful. Columbia has a database and then they have another website about teaching East Asia with a beautiful database for China and Japan but not Korea. One problem is which school is going to run it and how much it will cost. Maybe we could join forces with Columbia. Concretely what I would like to see come out of the meeting in online database, syllabi, lists, etc.

Kyeong-Hee Choi: As you can tell there is a lot of anxiety among junior scholars. There are three main areas where we are judged: scholarship, teaching, service. Although most of the failed tenure cases are related to scholarship, my only feedback on teaching has been in the classroom. The teaching part has been the main issue for me. The service issue is unlike other area studies people. We have to be a bulwark of the field. It involves so many different things. So it is quite challenging to do even one, but to do all three together is difficult. Writing group is a good idea but logistically quite difficult. Creating an online bank of texts and sources is very much a possibility.

Bruce Fulton: I would like to emphasize mentorship. Every time I'm involved in a workshop, I tell a story about how I got involved in Korean studies. Somebody once asked Mike Mansfield who was about to retire from his ambassadorship in Japan about mentorship, and he said surround yourself with good people. I can't overemphasize that. There are good people out there and you can find them, and then you in turn become a good mentor. It means build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keeping in touch with them. We always appreciate knowing what happens to people we have mentored. As far as syllabi, I have a selective list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at is available for use. Next, this may be easier for senior professors, if you are attending a conference or in a different city with a Korean studies program, you might want to ask your colleague if you could speak with the students of the program. I often do this when I am in New York and talk with people at Columbia and ask to speak with the graduate students. I have talked with them about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and other things.

In regards to tenure, one mistake I have seen is one person had materials from all over the place that they submitted for tenure, and this didn't work very well. Tenure referees like to see some semblance of focus in the tenure package. As far as venues for publication, don't forget that we have long had three publications for Korean studies: *Journal of Korea Studies*, *Act Koreana*, *Korea Journal*.

In terms of lack of books and library resources, this is something the instructor is required to take care of by himself or herself. This reminds me of a course I took during my master's. On the first class the instructor made five trips to his office and each time brought back an armful of books. He knew what resources were available and what would be good for each student.

We are at the point now where we have enough materials to teach a survey course in both modern and premodern literature. When I first started teaching at UBC in 1999 there were modern and premodern literature courses on the books. I didn't know much about premodern, so I gathered as many materials as I could. Classroom teaching is very important in my view. It prepares you for the role of being specialist in a highly specialized field. We have to be out there, and people have to know that there is a field of Korean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literature in North America. We have to connect with people whether it is with funding people of bright students in other fields. If you can teach a survey course to 40 people and remember all of their names and can engage all the people in your class, you are building skills that you can use for the rest of your career. I regard classroom teaching as a very important part of what I do. Classroom teaching is also a great way of learning something. I would take the fact that we are not completely competent and turn it around so that we have an opportunity to continue learning for our teaching. If they can see you have a passion for what you are doing then they don't have to ask themselves why they are taking a Korean literature course.

Kyeong-Hee Choi: I think you (Bruce Fulton) will be a great resource for building a database of materials because of all of the translations you have done. This is a small field, and there are key people, and we could learn a lot from you.

Bruce Fulton: Maybe we could make a North American version of Brother Anthony's website.

Comment: The main concern with building a website is someone has to maintain it and update it constantly. We could make syllabi available online along with a list of readings. We could each do that on our own school websites, listing what courses we have taught with syllabi and reading lists.

Kyeong-Hee Choi: One option is that we could use the website for this workshop as a starting point.

Young-Jun Lee: I would like to mention the magazine Azalea. When I started the magazine with a lot of people, it was for all of you. I wanted to publish academic articles. When I was writing my dissertation I contacted the three journals about publishing an article and it was very hard and could take up to three years. With Azalea we would like to publish academic essays, and it will go through the review process but only two years—less than other journals.

Ross King: I don't think myself or Bruce Fulton represent a "normal" trajectory. I am the first person to become a professor that is not one of the three: missionary, peace corps, or military. I started out as a linguist. A lot of us are in departments and claim that we d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language is thrown in without thinking. Language and linguistic instruction are trivialized. There are also very few programs with a literature professor and language/linguistics professors. A lot of colleagues trained in literature despise language teaching. A strong and vigorous language program is your best friend and should work together with literature hand in hand.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heritage versus non-heritage education. A lot of people coming into the field are heritage people that have not had to learn Korean "the hard way" which can be a danger for a language program that starts from the very beginning. The recent example of cuts at Berkeley is a good example of what can happen.

Bruce Fulton: If you are involved in language teaching make sure it is at the upper levels because the students can get access to literary materials. One of the good outcomes of this is that students can get involved in Korean literature. Even if they don't get involved in Korean literature, they may get involved in translation. One good example of this is a biochemistry student from Taiwan who is producing quality translations of a contemporary author.

Kyeong-Hee Choi: I think this is a very important issue, and the two of you come from the same institution. From this I can see certain institutions have certain strengths. As one who trains graduate students, we have to think about language instruction at the graduate level. Many students get discouraged as many Korean students from Korea are entering graduate programs.

Ross King: In my experience,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be better than your colleagues in

Japanese and Chinese. They never feel the need to study Korea or Korean. If you read their work and then pull out related materials from Korea, that will make Korea indispensable. That means knowing what your colleagues are doing and making yourself relevant. Some of the failures we have seen have been failures to prove the relevance and connections.

#### 다양한 대학제도 내에 위치한 한국문학

Kyeong-Hee Choi: I cannot agree more in terms of the spirit although it is scary. Now we can move into the topic of our institutions and how to survive well. Ross's point is very important. I am not a product of East Asian Studies, so I didn't learn Chinese or Japanese. After finishing a draft for my book manuscript I had to go to Japan to see if what I was doing was right.

One of the institutional strengths of University of Chicago is interregional 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Many students here are doing multiple languages in their studies. We do not have a core course that would allow us to look at the languages of East Asia – Chinese, Korean, and Japanese. We are trying to develop this type of course. I was a language teacher for ten years and that is how I got a feel for Korean language materials. Institutions have different strengths.

Michael Bourdaghs: One thing I am grateful is that I came up in a mature field and didn't have to participate in field building. In Japanese literary studies, the Association of Japanese Literary Studies started out very small with very little funding. It used to be a small meeting with 40-50 people attending and now it's in the hundreds. It is a very good place for junior scholars to come together. It was only Japanese literature. It didn't require a lot of money, but it did require a lot of time on the part of senior professor.

One of the things that comes up in tough tenure cases in letters of recommendation from senior professors. It would seem like there are a lot of senior scholars in the Japan field, but there aren't. Once you get to be a senior scholar, you get a lot of requests. I get a lot and have to turn down some and only accept if I am reasonably familiar with this person's work. These are people who I have encountered at workshops, conferences, in publications, etc. Get yourself out there whether at workshops or conferences. It is kind of schmoozing, but it is important to get yourself out there. One thing I did as an assistant professor is to promise to write papers about things I knew nothing about at some point down the road. This put a lot of pressure on me to get the research done.

Kyeong-Hee Choi: What would you say in relation to different institutions about ways to deal with the institutional differences?

Michael Bourdaghs: When I was at Cornell I wanted to do Korean, but I was discouraged from doing that because there weren't people teaching Korean. To go from that to UCLA was quite eye opening. I had students who made the case quite well that you can't do modern Japan without doing Korea. Here at Chicago we are always pushing students to get outside of Korean studies or even outside of East Asian studies.

Kyeong-Hee Choi: We talked about this small number and when Michael came we talked about the beauty of a small number. UCLA and Chicago are very different. We only have a few people. One of the reasons why I was able to get tenure here,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Korean studies but had difficulty filling the position. My background in a non-Korea area helped in that I was able to talk with others. The lack of a structure in place can be a good thing because we can create it. Each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institution can create its own system. If there is anything that is visible at Chicago is that it is integrated with the institutional structure.

**6월21일 오후 3:00-5:00**  
**Conversations with Hyung-Taek Lim, Jae-Yong Kim, and Byung-Sul Jung**  
**Review and Planning**

토론을 마치며 느낀 단상(斷想)

김재용: 이번 학회를 통해 많은 것은 배웠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야 할 지 생각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날 회의에서 제가 “생산적 긴장”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문학이 한국 내에서 할 수 없는 한국문학의 분야를 자원으로 삼아 국문학과 생산적인 긴장의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적 협력 작업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가 향후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근 사오 년간 한국 문학 연구를 조금 접고 약간의 의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이완의 학자와 만주를 전공하는 일본, 중국학자, 그리고 일본 근대문학을 전공하는 한국학자, 중국학자 등과 함께 식민주의와 문학을 주제로 세 번의 컨퍼런스를 주최했습니다. 근대문학의 연구 범위를 동아시아로 넓혀보기는 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근대 문학은 동아시아 문학 내에서 해결되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북아시아의 영역을 넘어 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 문학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저술 작업에서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한국 문학을 너무 한국 근대 문학 속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한국 문학 연구에서의 오랜 관습이었고, 그 관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한국 문학 연구의 한계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적 긴장”을 통한 생산물, 그리고 창조적이고 상생적인 기획을 통해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한국에 돌아간 이후 저의 작업에 있어 이 곳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병설: 우선 이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부터 유학을 소망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하버드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완월회맹연>>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이후에는 정재서 같은 중국문학 연구자들도 들어와 함께 공부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이 많습니다. 북미 연구자의 경우에는 생각의 틀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던진 영똥하면서도 도전적인 질문들이 저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지금까지도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극을 받을 시간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극을 받았던 것은 사실 미국에서 나온 중국학 연구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나온



한국학 연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경: 저는 급작스럽게 회의에 참가하게 된 감이 있지만, 우선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북미에서의 연구자들이 대부분 여성 연구자들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곳의 선생님들과 좀 더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외국 학자 초청 프로그램을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의 많은 협력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근식: 저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가 발표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즉 북미에서의 한국학에 관한 최근 연구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회의는 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만약 주제를 중심으로 회의를 구성한다면 비문학 연구자들도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게 자리잡은 젊은 교수들이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한국학은 영어로 된 교재가 부족해서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학자들과도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점들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아직 한국학은 분화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 좀더 통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한국 문학 연구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문학, 영상에 관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남망국사>>에서 시작해서 해방 전후까지, 혹은 <<황진이>>까지의 문학 작품들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동안에 문학을 도외시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사회학 연구에] 문학 작품을 좀 더 활용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소감을 말씀 드리자면, 처음에 준비를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어떤 모임이 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많은 학술회의에 참여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소통이 잘 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읽고 진지하게 토론에 참여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흐뭇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한국학이 중국학이나 일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고 특히 중국학이 커짐에 따라 위축되는 감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을 통해서 봐야 동아시아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국학 전공이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만나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반면 한국 사람이 함께 있으면 소통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은 대국주의가 있어서 동아시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서양과의 관계에서도 “중서”라는 말을 쓰지 “동서”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의

시각에서는 동아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동아시아”라는 말을 쓸 때에는 나름의 콤플렉스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동아공영권과 같이 일본은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를 지배의 영역으로 보았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동아시아를 보는 데 있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동아시아”를 내세우는 일본 사람들 중에는 조심해야 할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은 보지 않기 때문에 일본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로 보는 서양 학자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학을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을 폭넓게 같이 봐야 한다는 관점을 늘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동반상승의 길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인의 구체적 조건에 천착하면서도 이것을 세계 보편적인 차원과 연관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미국에서 진행하는 한국학은 한국학의 특수성만을 해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고 보편적 담론으로 등록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편적 담론 하면 서구 문화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한국학을 통해서도 보편적 담론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Kyeong-Hee Choi:** 중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한국학이 가질 수 있는 세계 학문에서의 위치, 즉 한국을 알아야 동아시아가 보인다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세계 보편적인 담론을 한국학에서도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카고 대학의 경우, 교수 임용을 할 때 이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항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한국학 교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대학에 하면, 당장 내려오는 답은 우리[시카고 대학]는 지역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학 문제는] 학제적으로 진행되는 담론과 바로 맞부딪치는 면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시카고 대학에서 한국문학교수를 한 명 더 뽑게 된 과정

**Sunyoung Park:** 시카고에서는 어떻게 한국문학 교수 자리를 하나를 더 마련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Kyeong-Hee Choi:** 시카고 대학은 역사학과가 사회과학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언어문명과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에는 역사학과 교수들이 제법 겸임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역사교수 중에 유독 커밍스 선생님만이 사회과학대학 역사학과에만 속해 있기 때문에 인문대학에서는 저 혼자 한국학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부임한 이래 제가 한국학 프로그램을 꾸려오는 것을 지켜보신 저희 과 선생님들은 한 개인이 혼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어 프로그램 담당하시던 책임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고 당시 언어 교육 분야가 학내에서 조직적으로 다시 자리매김되면서 그 자리를 한국학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unyoung Park:** 그러면 어떻게 문학자리를 확보하셨나요.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Kyeong-Hee Choi:** 시카고 대학은 규모가 작습니다. 학부생은 사천여명, 대학원생 팔천여명 정도여서 학부생을 위한 큰 규모의 교수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교수진의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과 선생님들이 동의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대학원생 수가 많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저 한 사람으로는 교수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Sunyoung Park:** 대학원생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했군요.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학 교수]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기 [시카고 대학]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보았습니다.

### 교재 개발에 관해

: 저는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바는, 높은 레벨로 올라갈수록 [언어수업시간에서] 토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을 공부했는데, 제가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은 한국에 관한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어 교육을 공부하면서도 한국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수를 또 채용하고 커리큘럼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지만요. 개인적으로도 문학과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워크샵에 오신 대가 선생님을 직접 모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어 수업에서도 서사물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기존의 자료들은 우선 재미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요. 저도 아동 문학 등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결국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설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업시간에] 판소리 자료들을 좀 다루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소리 자료들은] 많은 작품들을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 가는 것은 야담을 좀 찾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야담을 교재로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정병설:**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조선 천주 교회사>>를 추천합니다. 1873년 프랑스 선교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이 19세기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우성 선생님과 임형택 선생님이 번역하신 <<이조한문단편집>>도 중요합니다.

**임형택:** 김숙영 선생의 <<조선 문화사 서설>>이라는 책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읽기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재용:** 번역하신 분이 한국에 최초로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이죠.

**임형택:** 그 책이 조선 시대의 실제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 북미 한국학의 제도적 지원방법

**Hae-Young Kim:** 이전 토론에서 한국 문학에서 정년을 받는 과정이 지금까지 실패가

2009년 6월 17일 현재 편집중입니다. 인용자료로 쓰지 말아주세요.

- 더 많았던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샵이 그런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임형택: 그런 면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이라든지 한국의 재단에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 Ross King: 사실상 한국에 계신 동료들의 말이 더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한국에서 오신 학자분들]이 한국에 가서서 한마디라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영일: 번역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혹 오해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Ross King: 어제 번역 아카데미 예산을 물어봤는데, 삼백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그만한 돈이면 저희[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돈이면 수십 명의 대학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번역원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떻게 쓰이는데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한국학 중앙 연구소에 가장 많은 예산이 돌아갈 것 같더군요.
- 김재용: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는 번역원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 Hae-Young Kim: 한국학 중앙연구원 지원으로 Henry Em의 책이 곧 출판됩니다. 학교별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요.
- Ross King: 한국학 중앙연구원이 원하는 것은 컨소시엄입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모델은 매우 사회과학적이고요. 일년 만에 금새 결과물을 내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설사 재정지원을 받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지원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 Kyeong-Hee Choi: 저만 해도 저를 아끼시는 선생님들은, 저한테 연구와 집필에 집중하라고 하며 예컨대 북미한국문학워크샵과 같은 행사조직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 Hae-Young Kim: 그래서 가능하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Kyeong-Hee Choi: 폐회사.  
간사인 박현희 (Korean Studies Coordinator) 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간사를 도와 행사진행에 도움을 준 시카고대학 한국학 대학원생들 (Heekyoung Cho, Namhee Han, Hyun Suk Park, Ji-Young Kim, Jae-yon Lee, Jon Glade)에게 감사드리고 웹사이트를 만든 Kevin Mulhollander와 비디오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한 Andrew McClough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이 자료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나 제안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jaelee@uchicago.edu](mailto:jaelee@uchicago.edu)로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